

by 밍폴 Dec 15. 2023

2023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미국 생활을 한 지 딱 찬 6년이 되었다. 올해 1월에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, 비교적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새롭게 느꼈던 점들이 있었다.

먼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시선으로 보자면, **한국은 살기 편한 나라였다**.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정신적, 심리적인 부분은 아니다. 그저 정말 "물리적으로" 살기 편하다는 뜻.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면,

차 없이도 이동하기 편리하다. 대중교통이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이 으뜸일 것 같다. 특히 지하철안에서 터지는 와이파이 연결이 최고다. 심지어 북한산 정상에서도 인터넷이 된다. 이 점이 미국이랑 두드러지게 다른 점인데, 일단 미국은 산 정상 부근으로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네비가 안 되고 인터넷 연결이 끊긴다. 그 예로 한 번 렌트카 빌려서 산에 갔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했다 (자세한 내용은 [링크 참조](#))

카페에 비데가 있는 것에 감탄했다(네, 미국에서 오히려 시골쥐가 되었습니다). 그만큼 세련되고 어디를 가든 깨끗하다. 미국은 당장 시골에 있는 스타벅스만 가더라도 화장실에 파리가 횡횡 날아다니고 변기도 왜인지 안 닦았을 것만 같은 느낌을 풍긴다. 한국 도착하고 며칠 지나면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수도권 웬만한 데는 비데가 있는 걸 발견해서 별 감흥이 없었지만, 미국에서 비데?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.

의료보험이 잘 되어있다. 이번에 **위내시경 검사**를 하면서 꽤 많은 비용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감사했다. 미국 같은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위내시경 검사는 기본 50만원 -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

하기 좋은 곳이다. 그래서 최근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한 번 갔다 오면 한국에 대해 너무 좋은 인상과 또 다시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. 특히 아기자기한 소품들, 그리고 싸고 작은 소품들이지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각양각색으로 많다.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똑똑하며 창의적인지 느끼게 된다.

두 번째로, 대부분 어딜 가던 효율적이고 일을 잘한다. 이건 물론 직장 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주문할 때 많이 느꼈다. 특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을 한다: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아침 11시까지 샌드위치를 시키면 아메리카노를 500원 할인해서 준다든지, 10잔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면 커피 값을 45% 할인한다는 것,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달콤 커피의 경우 커피숍의 굿즈를 만들어서 그걸 구입 시 아메리카노가 공짜라든지 하는 것과 같은. 마케팅적인 면모는 한국이 일반 미국 커피숍 보다도 더 앞서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.

또 하나 체감했던 부분이 있다면, 카페에서 주문받는 분이 비교적 빠른 어조로 재빠르게 질문에 대답한다. 일적인 면에서는 최고다. 그 대신, 그만큼 정을 느끼기가 어렵다. 그저 음료를 주문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. 그래도 미국에서는 사람들과 미소라도 한 번 더 짓고 교감한다는 느낌을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‘나 따로 너 따로’ 각자 살기 바쁘다-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.



세 번째로, 옷을 입는 것도, 생각하는 것도 획일화된 듯 아닌 듯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.

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채색의 옷을 입는다. 검은색 아니면 흰색 또는 회색.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획일화된 패션이다. 패셔너블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모방한 것처럼 비슷하게 입고 그 안에서 독특함을 찾아보기 어렵다. 다채롭지 않다. 그렇기에 해외에 나가서도 입은 옷 스타일을 보고 그 사람이 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상대적으로 한눈에 판가름할 수 있다(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렇다).

네 번째로, 세심함과 예민함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곳이다. 몇 가지 놀랐던 점들이 있는데

백화점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 것. 미국에선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. 그래서 한국에선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더 강한가 싶기도 했다.

버스에서 음료를 들고 타면 안 된다는 것. 한 번은 완전히 식고 거의 다 먹은 커피를 들고 타려 했는데 버스 운전사 분이 다 버리고 타라고 하셨다. 그러나 주변에서 쓰레기통을 발견 못했고 결국 그 버스를 놓쳤다. 미국에서는 이런 규제도 없을뿐더러(아무래도 대체로 다 차로 이동하니까),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은데 (기사를 찾아보니 뜨거운 커피에 든 사례가 있어서 당연한 거라는 얘기도 있다)

직접 겪은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한국은 더 배려해야 되고, 그래서 더 세심해지고 촉을 세우며 살게 만드는 사회가 아닌가 싶었다.

분명 "물리적으로" 살기에는 편한 곳이다. 단지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고 약간의 획일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살기 좋음에도 내면의 우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. 아님 우리 사회가 너무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들도 더 주목해서 돌보기처럼 보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.

이글새한은 오래 함께 하면서 그전에는 안 보였던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 가던 나하